

基督教思想

特輯 · 새 時 代 의 人 間 像

聖 書 의 人 間 像.....金 龍 玉

東 洋 의 人 間 觀.....柳 承 國


哲 學 的 人 間 學.....尹 聖 範

새 人 間 形 成 의 課 題.....金 夏 泰

座 談 會 · 教 會 革 新 의 課 題

모차르트의 음악과 더불어.....칼 · 말 트

7.1960



Digitized by the Internet Archive
in 2016

CHRISTIAN THOUGHT

— Contents —

July, 1960

Special Issue : Humanity in the New Age

Editorial :

Do Not Let the Cloud Shelter the Sun 7

Articles :

- The Biblical Doctrine of Man.....*Kim, Yong Ok*12
The Formation of the New Humanity.....*Kim, Ha Tae*.....72
Philosophical Anthropology.....*Yun, Sung Bum*52
How My Mind Has Changed.....*Karl Barth*.....64
The Oriental Humanism.....*Yu, Sung Guk*20

Panel Discussion : Renewal of the Korean Church.....35

Participants : *Rev. Kang, Won Yong* *Mr. Kim, Sa Ick*
Mr. Kim, Chai Eok *Mr. Kim, Duck Whang*
Miss Mr. Chang, Kyung Hi *Mr. Kim, Byung Ok*
Mr. Lee, Sung Wha *Mr. Kim, Chai On*
Rev. Harold's Hong

Pulpit :

Open Temple.....*Rev. Kim, Sung Yul*28

Stray Thoughts and Notes :

- Prayer for the Second Republic of Korea.....*Hong, Dong Geum*.....11
Some Notes on the 4-19 Revolution.....*Mun, Ick Whan*82
The Minister and Books.....*Kwak, Chul Young*79
Eastern Christianity.....*Alexander Schmemmann*.....50
Boris Pasternack.....*Kim, Hyung Sik*.....32

Book Review :

- J. N. D. Kelly : Early Christian Doctrine.....*Sung, Gap Sick*.....94
Karl Barth : How to Serve God in a Marxist Land.....*R. Fitch*92

Bible Studies :

- Idea of Salvation.....*Kim, Chan Guk*86
Interpretation of the First Epistle of John(4).....*Ryu, Tong Shik*96
True Prophets and Pseudo-Prophets.....*Anh, Hi Guk*59

News of the Christian World :102

檀紀四二九〇年三月三日 許可第一九二號
檀紀四二九〇年八月一日 創刊
第三種郵便物認可番號第二〇四號

通卷第三四號

五二〇〇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가 혁신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교역자측 보다는 평신도층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혁신을 주장하는지 김재복 장노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在福 제가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 느낀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첫째로 교회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물론 평신도측에도 책임이 있지만, 전적으로 지도자 교역자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四·一九가 교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사회 운동의 운동으로 일어난 것임으로 교회가 무어라 말할 수 없지만, 이 기회에 교회 혁신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단에 서는 분이 옳은 편에 굳게 서서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도자들은 절절적으로 향상되었으면 해요. 그것

은 지도하시는 분들의 머리가 비어 있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확고한 지도이념이 서지 않아서 자신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일반신도들이 당황하는 것은 말할 것 없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예언자로 보는 데, 어떻게 지도자들이 역사에 반역한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필히 시정해야 할 일인데도 저하고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좀 권위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고 할 때 교회가 주저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정권에 아부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있어도 말 못하는 입장에 선 것 같은데, 이런 면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司會 이제 김장노님께서 장단을 맡은 교역자들이 시정해야 할 문

제와 교회 자체가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정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런 면에 혁신이 일어나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四·一九의 혁명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데, 그러한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교회에서는 평신도로서 활동하시는 이성화 박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李聖華 이번 혁명은 엄격히 말해서 정치적인 혁명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은 어떤 정치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이번 四월 혁명은 민족적이면서도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대단한 가치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누가 정신생활을 지도하고 말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물론 종교 지도자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대부분의 책임을 가진 줄 압니다. 그런데 과거 十二년간의 정권을 생

教會革新의 課題

때 · 6월 6일
곳 · 본사 회의실

參 席 者

司會

姜元龍 (本社編輯委員 · 京東教會牧師)

金得稅 (住宅營團理事)

李聖華 (延世大學校文科大學教授)

金士翼 (梨花大學校管財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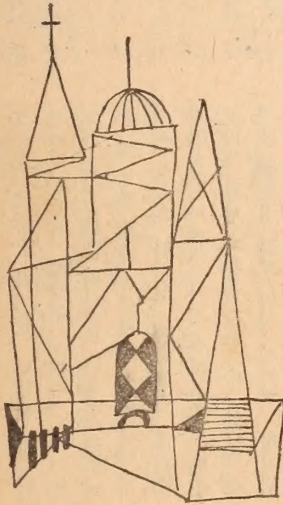
金在福 (基督教放送局總務)

張鏡熙 (梨花大學校學生)

金在은 (서울文理科大學學生)

金炳玉 (韓國銀行計理部長)

洪顯禹 (本社編輯委員 · 監神大學長)



一、무엇을 혁신할가

司會 오늘날은 현충일로 못처럼

하루 쉬는 날에 이렇게 참석해 주

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도의에서 한국 교회

의 혁신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

시는대로 개혁과 교회는 스스로 자

체를 개혁해 가는데 개혁과 교회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 「四·一九」자태를 계기로 우리

개혁과 교회가 한번 혁신을 해야 되

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서 말하는 혁신이란 한

사회단체에서 말하는 혁신과는 같

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교회가 회

개를 한다는 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말 오늘이야말로
스스로 교만된 태도를 버리고 냉철
하게 자신을 검토하고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 청산해 가는 과제도

李聖華 개인적으로 간단히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七十년 기독교사를 더듬어 볼 때에 일반적으로 서양문화를 우리 나라에 소개한 것이 기독교이고 동시에 교육적으로도 모든 문화, 그리고 민주사상면에 있어서도 앞섰다고 보는데, 대단히 웃은은 결과이지만, 항간에 이야기로는 기독교학교가 왜 다른 학교보다도 비민주적인 학원이나 학교는 기독교적인 학교라 하나 행정적인 면에서나 실제 학풍이나 교수들의 분위기를 볼 때 오히려 비기독교적인 학교보다 비민주적이요 독재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과거에 누가 권위자이며 누구의 해석이 가장 권위 있다는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우리의 방법에서 용감하게 서정해 나가야 하겠다는 태도가 먼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지도층에 있어서

역행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때 유감스러운 결과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혁신이 일반 사회적인 혁신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를 띠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洪顯堯 이제 이 박사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주의로 나가는데 대학에서 너무 어떤 때는 기독교주의의 교육을 강행하는 결과로 가령 교수나 학생들간에 거기 대한 반동적인 현상은 더러 없는지요?

李聖華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어 말하기란 어렵습니다만, 역시 기독교학교라 하지만 교수나 학생들이 다 기독교 신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 자신도 종교 교육만 바라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 선택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교육을 강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

리는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그들을 이끄러나가는 것 보다도 먼저 그들을 존중해 주는 방향, 말하자면 자유스러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인 첫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司會 이제 실지로 기독교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YWCA 회장을 맡아보는 장 회씨, 기독교학교에서 믿지 않은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일반 학생들의 기독교학교의 방향과 방침에 대한 생각과 반응이 어떤지 솔직히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후이것때문에 학교에서 처벌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기 김사의 선생이나 저라도 책임을 질터이니까(일분은은).

張鏡熙 아까 이성화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대학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대학보다 비민주적이라는 말씀에 저도 동

각할 때에, 음으로 양으로 이 교회
가 집권당과 관계가 깊었고 그런
점을 생각할 때 거의 하나의 프로
테스탄트적인 정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
에 우리 교회가 四월 혁명 이후에
반성해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
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평신도된
사람들이 지도자된 분들에게 부탁
할 것이 있다면 「정말 진리를 말씀
해 주십시오. 진리편에서 주심시
오」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싶
습니다. 제가 특히 건설적인 면에
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문제이겠
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 지도자들이 질적으로 저하되
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신학교육
이 과거의 어떠한 역할을 가져왔으
며,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육
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혹은 영적
인 지도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신학교와 관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많
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교역
자가 되려면 어떤 종교적인 문구를
수련한다든지 하기 전에 하나의 후
메니스티한 일반과학적인 면에 있
어서 일반사회인을 지도할 수 있는
정도에 나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인출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육하는 면에서 느끼는 것은
신학교의 교육정도를 일반 대학보
다도 훨씬 올리고, 교회의 지도력
이 모든 사회위에서 있어야 사상
적으로 빈곤이 없을 것이고 교육적
인 방법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나
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첨가할 것은 우리의 목회가
좀 더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 말하자
면 목회는 하나의 설교로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 주일설교로 교역자의 책임이

다 수행된 것이 아니고 六일 동안
교육을 해야 된다는 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구
체적으로 설교에서 그치지 말고 그
들의 생활과 사상과 사회를 일일이
교육적으로 지도해 나아가야 한다
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司會

이제 이박사께서 신학교
교육문제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
기에 확실히 우리 나라의 교역자의
수준도 문제지만, 평신도 가운데
지도자들도(목사의 입장에서) 말하
는 것 같지만) 참 문제인 것 같습
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대학교 같은 것이 우리 나라에 많
이 있고, 가장 큰 대학의 교수들이
성화 박사 자신이 하고 있는데, 이
제 그런 기독교 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면에 근본
적인 재검토와 혁신이 있어야 한다
고 봅니다. 그런 점을 살짝 덧붙여
저 말교(一同 웃음) 용감하게 이야
기하십시오.

과감하겠사옵습니다. 따라서 대학
생들의 눈에 비취인 교회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경멸을 받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여러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四·一
九의 틈바구니에 끼어 싸운 김재은
군, 대학생이 기질을 가지고 용감
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金在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
번 혁명이 이루어 놓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에게도 정의
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다는 힘을
발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
들도 예상한 것 이상의 놀라운 결
과를 얻은데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나 정치에 대한 불
만이 많았지만 이것을 개혁할 힘이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의심을 품어
왔었는데, 四·一九 이후에는 힘을
얻었습니다. 교회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 모듬이 있을 때마다 늘 이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 꼴인가? 라는 문제인데, 지

금까지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했습
니다. 대학생간에 늘 문제가 된 것
은 교역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새로 훈련
시키기 전에는 대학생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기가 심히 힘든다는 것은
공동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하
나는 교회지도자는 목사지만 실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장로들입니
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 목
사 자신이 직접 선거운동을 한 사
람이 있지만 한편 장로들의 압력도
전혀 없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뿐 아니라 교회의 장
로들도 반성이 커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독교의 높은 아이디어를
가르치면서 현실은 텃취를 하지 않
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가는
관계로 아이디어는 높으면서 실제
이 없는 면에서 늘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또한 교역자가 늘 진리
를 말하나 현실생활과 관계없는 이
야기였기 때문에 아무런 연결성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회서는 한편 교회가 정치에서 완
전히 떠나야 하고 사회적인 문제에
서 떠나야 한다는 이런 반응이 보
이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교회의 정치 참여가 나쁘다기 보다
는 그 방법이 나쁘다고 봅니다. 실
지 교회지도자들이 사회문제들 다
루려고 노력 않은 것도 사실입니
다. 이 점에서 교역자들에게 책임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생각
을 자유롭게 하고 의사를 교회 안
에서 표현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
니다. 즉 교회의 체도에 대한 불만
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는 보수적인 경향과 경건
등으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표현
하지 못하도록 엄버무려 놓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큰 병동 같이 생각
됩니다.

잡입니다. 제 스스로가 이 화대학
안에서 기독교학생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모순된 일도 많고 또한 수천
명 학생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돌렸
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장
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다
면 매주일 세번씩 체플에 들어가야
학점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YWCA는 교내에
있어서만은 기독교적인 것을 강요
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대학생활
에 맞는 프로그램 마련하고 있어
요. 한편은 어느 교수님께서 체제
지난번 덴만 박사가 오셔서 수많은
학생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Y
WCA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
나고 물어요. 실은 별로 반응이 없
어요. 그런데 저의 학교는 이상한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별반
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四
·一九 데모에 참가도 못하고 해서
요즘 값이 느끼며 반성하는 점이

있는데요, 사실 안만 분투 노력해
도 잘 되지 않는 안타까운 사실이
많아요. 이제 학교당국에서도 많은
반성과 자각을 하신 것 같지만, 학
생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견
들도 이해해 주셔서 민주적인 학원
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金士翼

이 화대학에서는 매일 열
두시면 꼭 예배를 보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로 종교를 권한다
고 하지만 우리 학교에는 종교위원
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
정할 때 이전 미혼스쿨이니까 학생
들이 들어올 때 이미 알고 왔고(물
론 불교, 천주교가 있어요) 그러
나 그런 조건으로 입학이나 졸업할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혼스쿨
이니만큼 전도할 기회만은 강제로
해야 한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강
제로 합니다. 요즘은 강당이 커서
다 함께 모여 만날 사람 만나고 하
니까 사교장처럼 생가해서 대단히

즐거해요. 이제 장양이 말한 것은
부족한 결점만을 말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전에 기독교를 몰랐던
학생들이 체플에서 기독교를 알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기방학에 농촌이나 산간벽
지로 가서 계몽하는 상상 못할 그런
수고를 합니다. 참 눈물겨운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체플에서 나온
일들이예요. 물론 장양이 말한 점
도 일면이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司會

지금 우리가 주로 취급
하러는 문제는 각 직장에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
아서는 안될 점이 무엇이나인데,
이번에 그런 점에서 주초적인 역할
을 한 것이 대학생들이고, 큰 역
사를 이루고 불의를 정복하고 새
역사를 창건하는데 우리 교회의 지
수자들은 정말 부끄러운 정도로 소
극적이 아니면 반동적인 입장에 서
옵니다만, 그러나 대학생들은 정말

면서도 교회가 의로운 입장에 서서 교역자가 그 선봉을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司會 오늘 이야기할 것이 세 가지 큰 제목의 있는데, 마지막은 김병욱 장로님께서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사업의 조류 속에서 일하면서 한 교회의 장로서 계시는데 정말 어려워한 데를 하루 속히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느끼시는 점, 아직 텅텅하지 않은 면을 말씀해 주십시오.

金炳玉 믿지 않는 사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대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수효, 서울 안에만 백여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교회회를 세워야 하겠느냐? 그것이 대부분 미국사람을 통해 원조를 받고 있는데, 한국정부의 부흥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각하고 시급한데가 많이 있는데 교회만 작구 지으니, 한국 전체의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나?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촌 같은 데를 보더라도 많은 백성들이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데 예배당만은 벽돌로 짓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교회와 백성간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이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나? 이런 것을 많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음니다만, 이번 대동령으로부터 정부의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치해서 이렇게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의 공박을 받습니다. 이것은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이 격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배만 보고 사회에 나가선 자기회령을 다 해 덕으니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화대학에서 三, 四백명을 세례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참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례 준다는 이 문제를 교회

가 잘 생각해야 될 문제로 압니다. 그저 행편에 따라서 수효나 늘이고 선교사가 와서 한꺼번에 수백명씩 세례를 주는 것이 자량이 되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세례교인이라면 충분히 당회에서 목사님이 이 사람은 세례 주어도 좋겠는가라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주초 문제, 즉 술 담배 문제에 관해서도 명백한 한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어떤 장로, 목사는 술을 자시는 데 너는 알마시느냐?의 문제가 늘 나오는 데 이것은 실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우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확연한 구분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洪顯高 조금 전에 김득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는 동의하고 한 가지는 다소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二、교회와 정치관계

司會

다음은 김득황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특히 요사히 이승만 정권과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너무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왔다 하는 이런 점에서 오늘 의 교회가 여러가지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주 사회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반성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金得槐

이번 한국의 학생은 새로운 철학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불란서 혁명이라든가 영국의 혁명이라든가 혹은 일본의 명치유신이라든가 모든 혁명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맨주먹으로 혁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 이 새로운 혁명사를 수립함에 대하여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혁명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교회 있는 이들은 우리 교회에 있다 하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박사나 이기봉씨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책임을 논다면 이박사가 집정을 할 때 우리가 권고를 못했다, 그 철의 장막을 뚫지 못했다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맨주먹을 들고 나서기 전에 목사나 장로들이 십자가를 메고서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실정에 대하여 무관심했다. 뿐만 아니라 그 정권을 계속하여 바들러고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느껴야 하며, 그것은 목사, 장로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또 그 가 실정을 할 때에 그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하지 못했다, 은 교회 가 경무대 앞에 가서 땅을 치며 기도했다면 부패정권과 부패를 시

정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면에서 책임 있었읍니다만, 믿는 사람이 실경을 했다 하여 교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치라는 사람의 책임을 어데까지나 정치인에게 돌리고 우리는 초연히 정치와 분리해서 교회 일만 잘 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와 정치라는 것이 떠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 생활이 직접 정치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 교회도 정치와 떠나서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니까 관심은 약해질 수가 없지만 해도, 이 거치는 교회가 정치문제를 떠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느냐인데, 이 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회는 의로운 편에 언제나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는 이후로 초연히 정치와 분리되어서 늘 감시하는 입장에서

설지로 교회에서 번번히 이박사나 이기봉씨는 우리 기독교인이나 하는 그런 소리는 나갔지만 그것을 반대 하는 소리는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자화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 당선이 된 후에도 부정선거라고 전국에서 소동이 일 어났을 때에도 교회 안에서 도 환영에 배들을 봤단 말이예요. 대한뉴스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에 배라 하여 전 시내 목사들이 동원되어 특별 성찬식까지 베풀고 하지만 반대되는 소리는 나가지 못했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책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리고 특히 역사적인 변천에 대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이에 대한 판단력, 즉 무엇이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랐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신학적인 빈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장로님께셔도 「정

치에 관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는 말이 금후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은 이 분만이 가진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각기 다 혁신해야 되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각 방면의 사람에게 지적을 요청해 보면 병이 들었다는 말은 하나 염동에 들었는지 폐에 들었는지 진단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다시 신학적인 검토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홍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洪顯高 문제가 너무 커서 잘 이야기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교에 있어서 보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첫째는 물론 종교가 영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의 化身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육신에 관계되는 것을 철학하게 역이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하나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보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신교도들은 일종의 금욕주의자와 같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흔히 금욕주의를 하나의 완전주의라 보는 데, 물론 이 완전주의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사람이 인제나 거기에서 자극을 받고, 또 불완전한 신앙이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겠다는 자극을 받는 것이니까 필요하긴하나 기독교인 전부가 금욕주의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련된 것은 한국 교회의 말세주의의 관념이 그것입니다. 일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조그마한 교파의 목사들은 四·一九 이후에도 하등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처음부터 망하기로 저주된 것이니까 잘되고 못되고 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말세가 와서 칠천왕국에 들어가면 그것

wrong idea

말씀드립니다.

가령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진 데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박사나 이기붕, 그리고 최인규씨 등이 기독교인이라 해서 기독교가 책임이 있다는 말에 아까 김장로님 말씀이 그럴 수 없다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도대체 권력기구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무런 사람의 힘이 크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 정치가 좌우된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저 혼자서 독재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기 까지는 그것을 방조한 전국의 수많은 경찰관이라든지 수천명의 장교, 그 다음에 수백만명의 당원을 가진 자유당, 거기에 간접적으로 관제된 대기업체, 이런 것들을 다 불가불치될 수 밖에 없는 데요, 만일 이박사나 이기붕씨가 기독교 정당만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실정

을 했다면 기독교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아는대로 자유당이 기독교정당이 아니고 보통 일개 정당으로서 조직하였으니만큼 이승만이나 이기붕은 자연인으로 들어가서 정당의 영수나 기타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되었던 것이니까(하기야 기독교인은 남의 책임이라도 걸머져야 하겠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그 두 분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장로님의 마지막 말씀이, 과거의 여러가지를 경험삼아서 앞으로는 정치와 관제를 풀고 초연한 자리에서 감시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늘 정치에 대해서 감시자나 비판자의 입장만을 우리에게 주지 도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특권을 가지려면 거기 해당하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세상이 부패하는 것도 우리가 있어서

되는 것이니까 우리도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분담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하고, 그래서만 감시자나 비판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 會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전에 이제 홍박사님의 의견과 좀 달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번째 문제는 같읍니다만,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박사나 이기붕씨나 그런 사람들이 단순하게인으로서 기독교가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는 점에서, 그리고 기독교 정당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직접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박사가 정동교회의 장로이고, 이기붕씨가 역시 대학 교회의 직원이고 또 이기붕씨나 박파리아가 다 YMCA나 YWCA의 이사장직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기관에서 그에게 그만큼 직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하는데 주로 그 책임이 목사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개신교에 있어서는 목사와 평신도 사이의 선이 거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평신도들이 목사를 하나의 특권계급으로만 들어주는 잠이 있습니다.

金士翼 교회가 잘되고 못되는 것이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과거 독재정권에서 고생하던 끝에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가 내각책임제로 해야 된다는가 하지만, 과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을 압니다. 과거 이 박사가 이 강산을 울리던 때 다수의 자유당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리했으면 얼마든지 했읍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제도가 나쁘다기 보다는 그 정신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문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아무리 제도를 뜯어 고쳐도 산 사람이 움직여야지

그렇지 못하면 몇번 고쳐도 마찬가지로 집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학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영으로 산사람이 지도해야 될 줄 압니다.

司會 시간관계로 좌담회를 빨리 끝맺어야 하겠는데, 간단 간단 하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화 박사님!

李聖華 교파간에 말리해야 되겠느냐하는 문제보다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독립된 교회가 못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과정에 있어서 독립된 교회로 출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흥박사님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저는 교직자와 평신도 사이만은 리추얼한 면에 있어서는 구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무사가 하는 것을 장로도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목사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확고한 자기 중심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운동은 교회전문가에 기대

끼자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평신도의 신학적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인들은 자기 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독서에 의거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특별한 신학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金炳玉 교회의 낡은 생각이랄 할가요 신앙만능, 신앙이면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구원의 요소는 되어도 남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데는 그것이 절대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에 있는 유능한 신자들이 저급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젊은 사람들을 증에는 교회일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교회는 이를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으로 다된 것이라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그대요. 이 말세라는 말「에스카토로지」는 그런 것만이 아니거던요. 그래서 따위에서 되어지는 일에너무 무관심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사람들은 예배당에 가면 별로 종교가 없어보이나 가정에 들어가 보면 참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三、제도상의 결함은 없는가

司會 이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제도의 결함이 또한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관하여 평신도의 입장에서 우리교회의 제도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在福 제가 생각하기엔 제도를 뜯어 고침으로써 가능하냐? 아니면 지도력이 조정되어야 하느냐? 의

문제입니다. 흥박사님의 말씀과 같이 四·一九가 지나가도 마찬가지로 아직 구태의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 답답해서 무어라 말할 수 없어요.

司會 오늘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령 선교목사들은 구교의 신부와 달라서 결혼하고 또 거기에다 자녀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의 앞에 나서자나 다 피진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생활비도 넉넉지 않고 해서 심리적으로 안전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안전주의를 택하자면 심방이라도 해서 어루만져주고 설교도 모나지 않게 여기거나 저기서 들어도 좋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독교서적 한 권 사볼 수 없는 목사들이 서울 안에서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런 환경과 제도속에서 어떻게 목사들에게 애인자적인 음성을 기다리며 불의를 불의로

날카롭게 단정하는 그런 기백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입니다.

金在福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느 목사 가 굶주린다는지 자녀교육을 못시켜 애쓰는 것을 볼 때에 그만큼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을 본다면 제 생각엔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올바른 신앙과 예언적인 설교를 한다면 같이 입고 같이 먹고할 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어떤 귀족적인 목사처럼 생각이 되고, 직업적으로 강단에서 있다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영적인 힘을 받으며 동정이 갈 수 있습니까. 이 점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해요.

洪顯高 이 기회에 잠깐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평신도에 대하여 몇 마다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평신도의 입장에서 교회

경복, 서울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다라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생들은 내개가 빈곤한 학생들이니 만큼 그런 학생들을 오게 할려면 역시 장학금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광임문제 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잉상태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읍니다.

司 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토의할 것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서 자주 떠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를 오게 하고 여기서 훈련도 받고 여기서 자라나도록 할수 있을가. 이것이 교회혁신 과제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학생 두분이 참석했는데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가 어떤 젊은이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張鏡熙 먼저 교역자들이 우리 젊은 세대와 호흡할수 없다면 그 자리를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일동 웃음).

교회는 이 젊은 세대의 심리와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金在은 대학생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은 교역자들의 지적인 수준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일동웃음) 그리고 한국교회 자체가 너무나 도그마틱하다는 것입니다.

司 會 김재은군은 바로 우리 교회의 교인입니다 (일동웃음).

金士翼 저는 평신도 신학강좌를 통신강좌로 했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서 대학생 을 위한 집회를 갖어서 그들이 참석해서 예배도 보며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의합니다.

司 會 오늘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아침까지 토의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간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 자신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사회를 말아서 못했습니다. 끝으로 추

상적이지만 마더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두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유리되고 고향이 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입니다. 둘 째는 세계교회와 유리되고 고향이 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이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만일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에서 유리된 교회라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시기에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회개라 혁신이라 봅니다.

오늘 형중일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끝)

四、신학교육의 재검토

司會

이제 교회를 앞으로 근본적으로 바로 잡을라면 정국단체와 달라서 인물이나 골라내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도자나 사상문제를 생각할 때 결국 신학교육으로 문제는 귀결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다는 말은 신학교육이 잘못된다는 말로 생 각합니다. 모든 혁신의 근본 출발이 신학교육에 있다고 보는데, 직접 신학교육을 맡아 수고하시는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洪顯高

대체로 지금까지 신학교육에 있어서 질적인 면보다도 양적인 면에 더 치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학교만 수십군데나 되는데 외국과 달라서 그 자격이 대학을 마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들어와서 대 학 4년의 과정을 마치게 되니까 신 학교육도 대학교육도 완전히 못되 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그 연합을 연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목사가 되어 나가 는 사람들의 인건성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인격의 균형이 잡힌 사 람들이 와서 배워가지고 나가야 민 중이 신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생 될만 한 사람을 추천해 보내라 하면 알지도 못한 사람을 도장만 찍어 보내니 이런 무책임한 추천은 결국 무책임 한 교역자를 양성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학교육에 적극 협력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 박사께서도 평신도의 신학 훈련에 관해서 이야기 가 있었는데 사실 평신도 신학문제에 관해서 지식은 가져야 되겠는데, 가능한 한 저희 신학교는 앞으로 새교사를 신축하면 평신도를 위한 야간신학 교를 만들어 볼 생각을 갖고있읍

니다. 끝으로 아까 이 박사께서 한국교회가 제도상으로 보아 아직까 지 의국선교부에서 완전히 독립되 있지 못하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린다면 사실 인물로나 교육 정도로 보아도 의국 선교사보다 낫 다고 볼수 있는데, 다만 자립을 못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만 하더라도 무슨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 놓고도 재정이 늘 문제가 되니 그들을 의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金在福

홍 박사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가령 일부급의 학생 들은 관립학교로 간다 하는데 그런 학생들을 오게하는 방법과 혹은 신 학생이 생산과잉이라는 말을 듣는 데 어떻게 처리하겠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洪顯高

최근에는 신학교에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 옵니다. 가령 저의 학교만 하더라도 배재나

General Discussion

What should we reform?

President: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Our subject to day is the renewal of our Korean Church. As you know the greatness of the reformed Church is renewing itself. As a result of April Revolution, there were opinions that our Church should be renewed. There are two points on the renewal of the Church. One is different from that of society, and the other is same as that of society. In Christian term, the Church must understand "conversion." It must assume the task to examine itself and correct what is wrong. There rises an opinion to renew Korean Church, which arises from the laymen rather than leaders. Let us hear Mr. Kim Choi Bok's opinion.

Kim Choi Bok:

As a layman I have felt a few things: First, though laymen have also the responsibility for Church's progress and decrease, but largely leaders of the Church have that responsibility. Since April Revolution was raised not by the Church but by the secular society, Church is not qualified to speak. But in this chance, I have a few things to talk about the renewal of the Church.

First of all, those who stand on the auditorium did not be right place. Next, our leaders must be improved in quali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as the leaders have in empty head, they have no firm idea against unfavorable trouble. Because of this, laymen are confused. They see Church less as the prophets. The leaders seem to betray history. They be

to correct what is wrong. They are griped with the past. It is a deplorable thing. The Church should be authoritative. For instance if there is a wrong in Church, it must be punished. Church must not flatter to power or politics. Because of this flattering Church seems to be dumb. This must be renewed.

Presider:

Now Elder Kim said two things. April Revolution was raised up by the students. As a leader of such students and an endeavorer of the Church, Sr. Lee Sung who will speak to us his idea please.

Lee Sung who:

Strictly speaking, this Revolution may be called a political one, but students seem to emphasize on spiritual side. While the April Revolution was nationalistic, it has brought much worth to spiritual side. If you ask me who the spiritual leaders are, I would answer they are the leaders of religion. I think that especially Christians have most responsibility. As I recall past 12 years politics, Church has had a deep relationship with the party in power. In this light, government was a protestant one. In this sense, we seriously feel the necessity to reflect ourselves. If there is anything to ask leaders of the Church, I would say "please tell me the truth, and stand on right side. It is all. Constructively, it is education. As I said before, our leaders are lacking in quality.

Our Church leaders in educational, cultural or spiritual leadership are closely related to education. I have had such an experience since I have had something to do with the Seminary. It is our common sense that we have to go to the further extent where we can guide people in humanistic general science before we train the terms of religion. Therefore, my idea in

education is to raise the standard of education of theology ~~to~~ higher than general colleges, and the ability of the leadership of the Church should be above the society so that there may be no poverty in thought, and educational method may be more specific.

Additionally, our ministry should be more technical and specific, say, the ministry must not end merely at sermon, but it must do education. I emphasize that ministers duty is not achieved only with a sermon on Sunday, but they must teach in six days. We must not limit the young generation in a sermon, but lead their life, thought and society in detail.

Presider:

Dr. Lee spoke of education of the seminary students. As for me leaders among the laymen are as important as the ministers. Though we colleges and universities train the leaders and Dr. Lee himself is teaching, we have to examine and renew the basic ground of such an education. Don't cover that point nimbly, speak out bravely. (laughter).

Lee Sung-wha:

Privately, as for 70 years of Christianity, it has introduced Western civilization into Korea, and at the same time it has advanced educationally, culturally the democratic thinking. But ironically, the rumor has it that the Christian school is undemocratic.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general method of study and professors, some schools are undemocratic and despotic more than other secular schools.

4.

We must not touch the question who is who the authority has or whose interpretation is most authoritative. More important we have to renew in our new method. It is to be regretted that our leaders have a tendency against it. So Christian renewal seems more than the renewal of society at large.

Harold Hong:

I would like to ask one thing Mr. Lee, Is there any sign of reaction among professors or students as a result of the severe emphasis on Christian education in Christian schools?

Lee Singwha:

There is. It is difficult to give you a specific example. But not all the students in Christian school are Christians. Since students themselves have not come for the religious education only, they have a freedom of faith. So there is a problem whether religious function or education should be emphasised. In the future, the task at the outset is to honor them, namely, to give them a free choice rather than to lead them.

Presider:

It would be better to talk in terms of a student in Christian College. Miss. Chang Kyung Hi, Chairman of Y W C A, would you tell us frankly the attitude and reflection of non-Christian students toward the Christian method and direction in Christian school? If you are afraid of any punishment by your speech here, Mr. Kim Sa Ik and I will bear that responsibility. (laughter).

Chang Kyung Hi:

I agree with Dr. Lee Sung Wha that Christian school education is undemocratic more than secular schools. I myself have faced various contradictions, and as thousands of students were pressed by Christian education, they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in action. Specifically, they complain that they have to attend Chapel service three times a week for credit.

So, our Y.W.C.A. is making a program ~~for the~~ practical, suitable for college students rather than emphasizing on Christianity in school. One day a professor asked me that when Dr. Canman came to Korea and baptized many students how much effect he brought to Y.W.C.A. Since our university has a strange Christian air, hardly any reflection is shown. As we did not participate in April Revolution, we deeply reflect ourselves. In fact, there are many anxious things which we can not do any more however we try. Though school authority seems to recollect and be self-conscious, I wish as a student they would understand students' opinions to make a democratic school.

Kim Sa Ik:

In Ewha woman's university, the Chapel service is held just at twelve.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You said we were forcing religion. But we have a religion committee. This is a mission school. Students themselves know it before they enter school. There are Buddhists, Roman Catholics

too. We do not limit their admission or graduation by this condition. Only because it is a mission school, evangelism alone should be forced. So we force everyday Chapel service on them. Today, they rejoice it for they can see each other they want to see, as the hall is pretty wide. Miss. Chang said only shortages, but as for me, many persons come to know Christianity in the Chapel.

In Summer vacation, they go to the country and hillside to civilize the people. This is beyond our thinking. Sometimes they do very tearsome works. This is come out of their Chapel service. Of course there is an element of truth in what miss. Chang said, but there are some more things beyond that.

President :

Today we have to handle our chief problem. We should correct in every occupation. In this college students have the basic function. They have made a great history, and have overcome the evil to make a new history, while Church leaders are shamefully passive or reactive. They fought really hard. The church in their eyes are seen miserable and dispisable in many respects. Mr. Kim Choi On, fought in april 18 Revolution, let us hear of your brave comment.

Kim Choi On :

One of the greatest things we have found through the April Revolution is that we can fight for the sake of justice. I surprised at the result we have hardly expected. Until today, I have had a doubt whether we had a power to renew the Church. After April Revolution, I got a courage.

7.
not only in this meeting, but in every meeting, there occurred Church problems. "Why Korean Church is like this?" has been the question for which we could not do anything. The ever rising question among college students is that Church leaders are lacking in ability. Their common idea is that unless leaders of the Church are trained better, they will not be able to lead the college students to the Church.

Another thing is that though leaders of the Church are ministers, the Church actually is handled by the elders. In the last election, some of the ministers participated in campaign. There might be an influence of elders. Not only ministers; but elders must reconsider themselves. They teach high idea of the Christian, but they do not touch the reality. So they are always blamed of their naughtiness in action though their idea is highest by coming to Church.

ministers speak truth, but that truth ~~has~~ has nothing to do with practical life. Through this event (Revolution?), there is a reaction in Church to leave completely from both society and politics. As for me, the method was wrong rather than the Church's participation in politics. Actually, leaders of the Church have not tried to deal with social problems. For this, leaders of the Church are responsible.

Until today, our Church has been too conventional, so that students have had no opportunity to have a free idea or to express their opinions in the Church. The Church

simply mixed them with conventional tendency and piety not to express the thought of the young. This is a great sickness.

2.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politics.

Presider :

next, let us hear of elder, Kim Suk Whang's opinion. Today Church is blamed of having a close relation with Syng Man Rhee government. Is it real? What should we reconsider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ociety?

Kim Suk Whang:

Korean students have given us a new philosophy. All revolutions such as French Revolution, England Revolution or Japanese Myong Chi yoo Shin used armed power. But Korean students have achieved the Revolution with bare fists. I praise them for their new revolutionary history. In a democratic revolution, they say, all responsibility is in Church. My view differs from it. Of course Syngman Rhee and Ki Boong Rhee are Christians. But what responsibility should our Church bear? If there there is a responsibility, that is we could not advise them and get through that iron curtain. Ministers and stewards could have got through it even with a cross upon them. They were indifferent. Above all, we tried to support them continue their position in power. For this, not only ministers, elders or stewards, but all Church members should be responsible. Church could not pray when he was in wrong reign. If all Churches had knelt pelting on earth praying in front of Kiyung Moo Dae, they might have corrected corruption. But, whole Church is not to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Christian failure in government.

Therefore, I want to turn the political responsibility to politicians and separate the Church from the politics. Of course, the Church can not be separated from politics because politics in fact has a relation with our life, and Church itself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politics. Though we should have a concern, we must leave political problem at this time.

Next thing is what the Church has felt through this event. Church must stand lonely. Church should watch separated from politics. Church should stand in the right side, and the leaders are vanguards.

Presider:

Of the three subjects, elder Kim Byung Ok, would you speak to us the points which should be corrected rapidly, chiefly non-Christian.

Kim Byung OK:

How does non Christian see the Church? Generally, non-Christians say why so many churches should be built? In Seoul area alone, there are more than one hundred churches. Most of them receive American help. For the rehabilitation of Korea, there are more things to be helped. If they build so much churches, how could the country's economy be? I myself have the same idea. In the country, most people live in straw thatched house, while the church is built of bricks. There is a doubt whether it is a right attitude between church and people.

Another thing is what Christian differs from non-Christian. They ask much of it. As we have talked just before, they attack us that all politicians were Christian. What was

difference from non-Christian? This indicates that the life in Church and society is separated. They worship in Church, but usurpate in society. We have talked before that three or four hundred students were baptized at once. How many people among them were really converted? Church should contemplate on baptism. It is not proud to increase numbers and baptize hundreds of people at the same time by a missionary. Hereafter ministers in Church must consider who deserves or is qualified to be baptized. There must be a strict line for the liquor and cigarret. They ask us always why you do not drink and smoke when your elders and ministers do? This affects greatly non-Christians. There must be a clear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Harolds Hong:

As for elder Kim Suk Whang's opinion, I agree with him on one thing. I agree with you that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e dictatorship of Syng man Rhee, Ki Boong Rhee or In Kyeu Choi. Since the power is organized complex, it can not be moved by one person. No one alone can make a despotism. Until Syng man Rhee government collapsed, thousands of policemen, gangs, party members, and business enterprises helped him. If Syng man Rhee or Ki Boong Rhee made a Christian party, we would be responsible.

Since Liberal Party was not a Christian party as you see, they became a ~~Christian~~ chairman or a leader as a natural man. Though Christian is responsible for others, we have no reason to be responsible for these two persons. But I do not agree with you on the other thing: We must be separated from politics and watch. I don't think the church will always be a watcher, and to have such a privilege, we have to be responsible. Anyway, it is we who who make the world corrupt. We must share a responsibility for politics. In that way, we can be either a watcher or a critic.

Presider:

Before we take over next subject, I would like to give you a different view from Mr. Hongs. I agree with his second points, but I do not with the first one. Christianity did not make Syngman Rhee or Ki Boong Rhee go into politics. This was their personal matter. Christianity is not affiliated into political party. For that point, Christianity can not bear the responsibility directly. But, the problem is that Syngman is an elder in Chung Gong Church, and Ki Boong Rhee is a staff of Tae Hak Church and he and his wife are chief directors of Y M C A and Y W C A. Church gave them such positions publicly.

Moreover, our church was proud that they were Christians, and church said nothing against them. When he was elected President, church held a welcome service. It was published in Tae Han news.

12.
all ministers in Seoul gathered together for a special service, had a special Communion, but no one said against it. Church can not say we have no responsibility. Christian leaders and laymen pretended to have a decision on the historical change — what to do or not to do. There may be a poverty in theology. Elder Kim said we should not participate in politics. at the same time, we should have a positive concern. Many of us have a same idea. Many people say we must renew. But if we ask them personally they do not know where the pain is. The problem ought to be referred to theological question. Would you speak to us of this matter Sr. Hong?

Harold's Hong:

The question is too big. In terms of our Protestant, we misunderstand Christian faith. In the first place, though religion is concerned with spirit, Christianity must not despise body because it is a belief in Jesus who has incarnated. Secondly, Korean Protestants are a sort of ascetics. Christian often takes asceticism for perfection. Of course, we need perfection in Church so that they may stimulate those who are lower and imperfect in faith. But, all Christians are not to be ascetics. Third, the escatological idea. Some ministers of minor denominations do not show any response. For they think that the world is cursed from the beginning to be perished, and they can not say anything about it. They wait rapid coming of the last day. If they enter thousand-year Kingdom, everything is O.K, they say. This escatological thought does not mean only that.

We must not be too indifferent from the things on earth.

I heard in U.S. that Americans did not seem to have a religion in Church, but they really have a religion at home.

3. Is there a wrong with system?

Presider:

There is also a wrong with system. In the light of a layman, there may be a point to be fixed up.

Kim Chai Bok:

As for me there are two questions: Is it a system to be changed or is it a leadership to be changed? As Dr. Hong said, it is hard to speak because they ~~th~~ have still the conventional idea even after April Revolution.

Presider:

We talked much about ministers. Our Protestant ministers marry and breed many children unlike the Roman Catholic priests. They can not wear rags for they appear in public. But they have no much money. So, psychologically, they tend to have safetism. To have safetism, they must visit homes, make sermons here and there or they may be driven out. moreover, there are many ministers who are not able to buy a book. How can we expect from the ministers a public voice or decision on evil in these circumstances and system.

Kim Chai Bok:

Of course, there may be difficulties. But, as for me, I can not be indifferent if there is a minister who starves or can not educate his children. If he has a right faith and makes a prophetic sermon, I am willing to share my own clothing and food. I feel, however, that they are noblistic and professional preachers.

How can we receive the spiritual power or help them?
This is basically wrong.

Harolds Hong:

now I would like to say for a few minutes as a minister. until now you have talked about the renewal of the church as a layman. In fact, in Protestant, there is no gap between ministers and laymen. In Korea, laymen make minister a preivilaged class.

Kim Sa Ik:

you said the system should be changed to make a better church. Under the past despotism, they say, the constitution should be changed or a cabinet ministry must be set up. But, if the person in place is just like the one in the past, there may be no difference. If The President with his power of the Liberal Party could have done a good thing. It was wrong with his spirit rather than the system. Church is a same thing. If the living person does not act, there is no difference whatever change there may be. So a living person must lead in spirit and direct the way with a right theology.

Presider:

Because of the time, we have to hurry up. Please speak only main points. Dr. Lee Sung Wha please!

Lee Sung Wha:

Our Christianity is not an independent one. In this stream of renewal, we must start as an independent Church. In light of Dr. Hong's opinion, I wish there would be difference between laymen and ritual minister in ritual.

ministers' leadership is not firm by himself, because elders can do what minister does. Church ruling is better to be operated in the hands of the experts.

Lastly, we have to train the laymen theologically. Actually church members do not know what they believe. Of course, they may be trained by reading books, but the church must needs give them a special theological training.

Kim Byung OK:

There is an old idea in church, that faith is everything. Faith is not an absolute element in leading and guiding others, though it is one for salvation.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able leaders in church must positively participate in all works. Many young men would like to partake church works. They must be well led and guided.

4. Reconsideration on Seminary education.

Presider:

In order to fix up the church basically, the problem results in theological education considering leadership or thought of theology, because it is quite different from politics selecting able persons. The beginning of all reforms rest in education of theology. Dr. Hong, in the field of education, will speak to us please.

Harold's Hong:

Until today, theological education was lopsided to quantity rather than quality. We have tens of seminaries. Unlike foreign countries, our students

are high school graduates¹⁶. They are to finish four year course of College in the Seminary. But neither theology education nor College education can be perfect. So long as finance allows, the length of study must be prolonged.

The next thing is the problem of personal Character of the graduating ministers. They must be ballanced in character in order to be ~~turned~~ trusted by the people. So far, many persons were not so. They recommand to the Seminary the students they do not know. This irresponsibile recommandation makes irresponsibile ministers. The Church must co-operate with theological education. (Seminary)

Another thing is, as Dr. Lee said, that we had to train laymen, we want to build a night course Seminary for the laymen. We have constructed a new building. In conclusion, Dr. Lee's opinion was right. Korean Church, in terms of the system, is not yet independent from foreign missionary. One reason for this is economic problem, while we are superior to missionaries in personal Character or education. Our methodist too must rely on them when we start a new work.

Kim Chai Bok:

I would like to ask Dr. Hong one thing. The first class students go to public school. Is there any way to make them come to the Seminary? Seminary students are over-produced they say. How can we deal with this problem?

Harolds Hong:

Recently, there are many quite excellent students in Seminary. As for our Seminary, able students from Bae Jai High School, Kiyung Bok High School and Seoul High School have come to the Seminary. They are poor students generally. To keep these students we have to provide enough scholarships for a safe study. As for the "over-production of Seminary students" I don't think we are yet in the state of over-production.

Presider:

One more thing to discuss is the fact that young men are leaving Church more and more. The problem is how we can let the young people come to Church, and have training to be grown.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thing in the task of renewal of the Church. Here are two young students. Let us hear of your opinion on what we should renew for the young generation.

Miss. Chang Kiyung Hi:

Leaders of the Church ought to retire unless they can breathe with our young generation. (laughter). I wish that Church could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problem of the young generation.

Kim Chai on:

The reason why college students do not go to church is that ministers' intellectual standard is too low. (laughter).

28.
Korean Church itself is too dogmatic.

Presider :

Kim Chai On is a member of our Church. (laughter).

Kim Sa Ik :

I hope theological lecture for laymen would be held through communication lecture. I suggest that we will have meetings in many places so that they may participate for ~~worship~~ ^{worship} and training.

Presider :

Subject of today is very important. It ~~will~~ ^{would} be discussed until tomorrow morning. Since time is up, we will stop here. I myself have many things to say. But ~~as~~ I can't because I am a presider.

In conclusion, abstractively speaking, Korean Church today is for any denomination at stake. There are two things: one is whether Church might not be isolated from the society. Another thing is the question whether Korean Church would not be isolated from the church of the world. If our church is isolated from that of the world, it can be nothing. Now Korean Church must change her direction. I think it is a repentance or a renewal.

I thank you for your attendance even on this Holiday. We will close it here as the time is up.

